오스트리아

2002. 12

박영곤(ygpark@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83,859 km^2
- 인　　구: 810 만명 (2001년 기준)
- 기　　후: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온난한 온대기후(년평균 기온 7-9 C, 강우량 700-2000 mm)
- 시 간 대: GMT보다 1시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
- 수　　도: 비인(Wien, Vienna) 인구 약 156만명

□ 정　　치

- 국가형태: 연방공화국 (9개 주로 구성)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대 통 령: 토마스 클레스틸(Thomas Klestil)
- 의회형태: 양원제
  - 상 원- Bundesrat (임기 : 5-6년, 의원수 : 64명)
  - 하 원- Nationalrat (임기 : 4년, 의원수 : 183명)
- 총　　리 : Wolfgang Schuessel (국민당)
- 주요정당: 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Oesterreichs, SPOE), 인민당 (Osterreichische Volkspartei, OVP),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Osterreichs, FPO), 녹색당(Greens), 자유포럼(Liberales Forum)

□ 사회 · 문화

- 민　　족: 독일-오스트리아계(97.1%), 슬라브계(2.7%), 아시아계(0.2%)
- 언　　어: 독일어(98%)

- 종　　교: 카톨릭(85%), 개신교(6%), 기타(9%)
- 국 경 일: 10.26 (1955년 중립국 선언 기념일)
- 도 량 형: 미터법
- 화폐단위: 유로(Euro)貨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및 무역협정(1892년), 1965년 재수교
- 협정체결: 무역협정, 섬유협정,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1998	1999	2000	2001
인구	백만명	8.1	8.1	8.1	8.2
GDP(명목)	십억달러	211.3	209.5	188.7	188.0
1인당GDP(명목)	달러	26,151	25,895	23,270	22,986
실질GDP증가율	%	3.3	3.3	3.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0.6	2.4	2.7
산업생산증가율	%	9.6	5.1	7.2	-0.6
수출	백만달러	62,768	64,147	64,109	66,664
수입	백만달러	68,213	69,581	58,266	59,579

자료: DRI · WEFA. The World Overview. September 2002.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2	2003	2004
GDP 성장률	%	0.7	1.4	2.7
물가상승률	%	1.8	1.6	1.9
산업생산증가율	%	1.5	4.0	4.9

자료: DRI · WEFA. Monthly Outlook. November 2002.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교역품목	수출		수입	
	2001	2002(1-6월)	2001	2002(1-6월)
0. 식품 및 산동물	3,022	1,572	4,059	1,936
1. 음료 및 담배	952	483	431	226
2. 비식용원재료	2,438	1,270	2,967	1,475
3. 에너지	1,458	918	5,471	2,736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53	33	105	53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7,228	3,937	8,056	4,056
6. 재료별 제조제품	17,805	8,860	13,686	6,499
7. 기계 및 운수장비	34,003	17,242	33,446	16,031
8. 기타 제조제품	10,264	4,906	12,637	5,946
9. 기타	288	448	256	354
합계	78,999	40,390	83,333	40,484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November 2002.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0	2001
< 수 출 >		
EU		
독일	24,413	25,528
이탈리아	6,464	6,866
프랑스	3,281	3,906
영국	3,148	3,782
스페인	1,972	2,038
미국	3,661	4,064
스위스	4,591	3,968
일본	956	947
< 수 입 >		
EU		
독일	34,305	36,189
이탈리아	5,357	5,596
네덜란드	3,374	3,801
프랑스	2,938	3,175
영국	1,990	2,009
스위스	3,491	3,659
미국	3,198	3,202
일본	1,202	1,054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November 2002.

다. 오스트리아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 오스트리아의 ODI와 FDI 규모(실행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직접투자(ODI)	1,378	1,934	1,987	2,745	3,301	5,740	2,961
외국인투자(FDI)	1,265	4,426	2,654	4,533	2,975	8,840	5,909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 가	2000	2001
EU 회원국	3,092	-348
독일	1,957	445
이탈리아	90	91
네덜란드	699	100
영국	133	58
스웨덴	126	-12
덴마크	48	24
EFTA 회원국	-90	139
스위스	-128	106
중·동구	2,393	2,378
기타	849	782
일본	10	7
미국	494	135
합 계	6,244	2,951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ヅエトロ投資白書, 2002年版.

□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 가	2000	2001
EU 회원국	8,237	5,163
독일	7,873	1,297
이탈리아	133	7
프랑스	68	71
스페인	28	271
네덜란드	-561	491
영국	379	3,011
스웨덴	52	34
EFTA 회원국	327	328
스위스	334	277
노르웨이	-11	24
중·동구	30	8
기타	628	444
일본	0	7
미국	458	471
합 계	9,223	5,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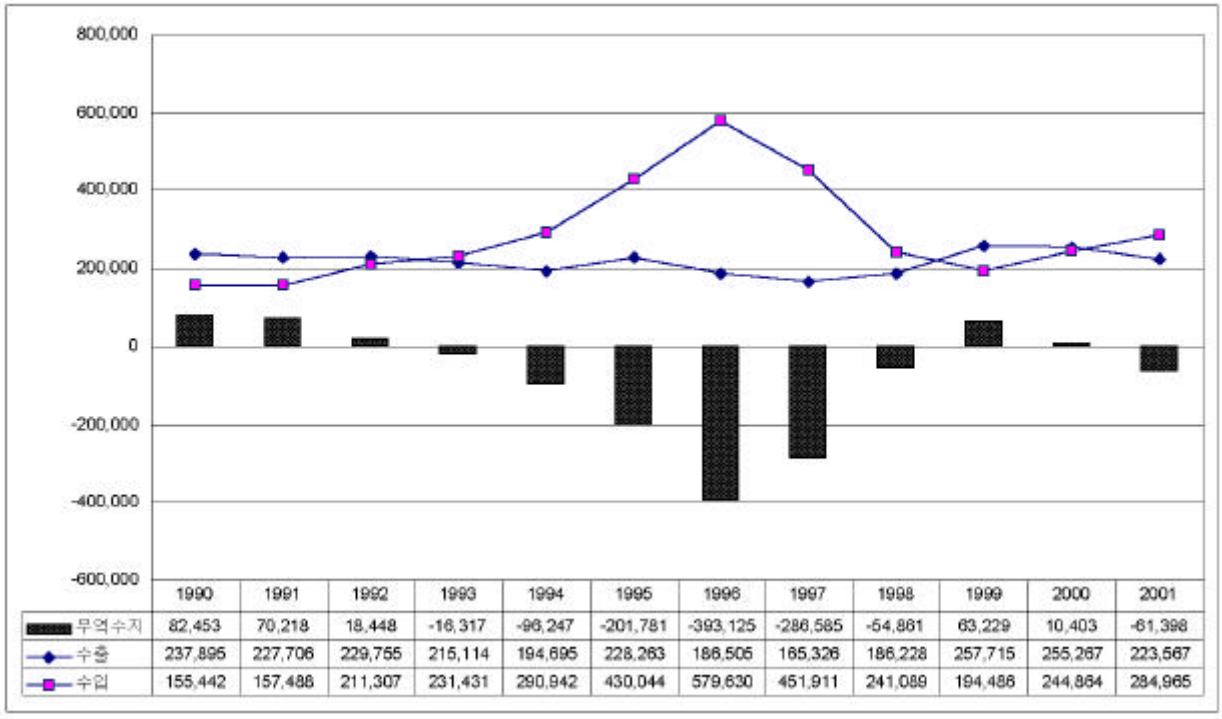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ヅエトロ投資白書, 2002年版.

4. 한 · 오스트리아 경제관계

가. 교역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무역수지	82,453	70,218	18,448	-16,317	-96,247	-201,781	-393,125	-286,585	-54,861	63,229	10,403	-61,398
수출	237,895	227,706	229,755	215,114	194,695	228,263	186,505	165,326	186,228	257,715	255,267	223,567
수입	155,442	157,488	211,307	231,431	290,942	430,044	579,630	451,911	241,089	194,486	244,864	284,965

ÀÚ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출 내역(HSK 2단위, 금액순)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1		2002(1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4,166	23.7	199,399	201.6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6,025	-8.4	58,611	21.3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2,662	22.1	25,012	33.9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26,34	64.1	11,037	411.7
고무와 그 제품	12,068	-27.1	7,245	-28.7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의료용 기기 및 그 부분품	11,549	-65.4	5,011	-55.2
동과 그 제품	3,630	157.6	4,005	28.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4,978	-5.9	3,690	-9.5
침투, 도포, 피복,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2,996	60.8	3,105	27.1
총수출	223,567	-12.4	337,728	82.1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입 내역(HSK 2단위, 금액순)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1		2002(1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3,967	-6.3	47,791	40.4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0,483	-1.5	42,317	30.6
유리와 유리제품	32,773	-8.5	28,738	5.1
인조단섬유	9,478	-11.7	18,755	160.4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512	55.1	15,879	-6.8
유기화학품	7,191	35.0	10,916	162.1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및 무기화합물	14,476	8.3	10,697	-11.7
육, 식용설육	7,085	25.4	9,482	88.8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883	-11.9	8,704	43.9
총수입	284,965	16.4	264,925	14.7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총누계 (1968 200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4,832	1	4,682	0	0	3	378	1	77	10	23,6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2002.

□ 오스트리아의 對韓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1 2		총누계 (1962 20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4,086	0	0	8	10,961	1	404	1	40	24	28,643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2.

III. 경제현안

1. 오스트리아의 경제현안

가. 개요

□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1년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으나, 2002년 들어서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2/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의 성장으로 1/4분기 0.4%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불안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아님.

<오스트리아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2002. 4/4	2002. 1/4	2002. 2/4
전분기대비	0.2	0.4	0.6
전년대비	0.1	0.0	0.9

자료: Eurostat.

□ 오스트리아 경제가 2002년 상반기동안 회복세를 보인 것은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수출이 다소 증가한데 기인하며, 여타 내수요인들은 아직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수출은 2/4분기 전분기대비 1.5%의 성장을 보인 반면, 민간소비는 미국과 최대 교역대상국인 독일경제의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불안과 실업률 증대로 인해 부진한 상황임.

- 민간소비와 함께 정부소비도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규정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세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2/4분기에는

전년대비 0.2% 증가에 머물렀음.

- 현재 오스트리아경제에 있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임.

○ 오스트리아의 2/4분기 전년대비 투자증가율은 1/4분기 -10.0%에 이어 -5.6%로 여타 유로지역 회원국들과 같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에 따라 소비자 및 재계신뢰지수 등 경기체감지수들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올해 초부터 계속 하락하여 8월에는 -1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9월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여 11월에는 7을 기록하였음.

- 이에 반해 산업부문에서의 재계신뢰지수는 11월 -16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재계신뢰지수의 약화는 최대 수출시장인 독일의 경기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산업활동은 독일의 경기둔화 지속과 함께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오스트리아의 경기체감지수 추이>

(단위: balance)

	2001.12	2002.1	2	3	4	5	6	7	8	9	10	11
소비자신뢰지수	-1	1	4	9	5	4	4	2	-1	6	5	7
재계신뢰지수	-22	-20	-16	-18	-17	-16	-14	-16	-18	-18	-12	-16
건설업신뢰지수	-46	-38	-26	-38	-38	-38	-40	-33	-37	-38	-36	-38

자료: European Commission.

- 노동시장도 건설산업의 침체로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ㅇ건설산업의 침체는 독일로부터의 건설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하며, 최근의 독일경제전망을 감안할 때 2003년에도 오스트리아의 건설산업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도 2003년말 이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향후 오스트리아경제의 회복은 내수성장보다는 미국과 최대 교역대상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전망은 對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함께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독일경제는 더블딥의 위험까지 지적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외부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경제가 그 동안 세계경제환경과 기계 및 설비의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시일내에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오스트리아는 내부적으로도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같은 불안요인들로 인해 경제전망기관들은 향후 오스트리아의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 DRI-WEFA는 오스트리아의 2002년과 2003년 GDP 성장률을 각각 0.7%와 1.4%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7월에는 각각 1.2%와 2.6%로 전망하였음).

- 오스트리아의 최대 경제연구기관인 WIFO도 오스트리아의 경제전망치를 2002년 0.9%, 2003년에는 2.2%로 하향 조정하였음(지난 7월에는 각각 1.0%와 2.8%로 전망하였음).

- 향후 오스트리아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것임.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2년 1.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3년에는 1.6%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4년에는 오스트리아 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1.9%로 인상될 것으로 DRI-WEFA는 전망하였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2003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오스트리아도 2003년말부터는 안정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금리는 2003년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오스트리아는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부채를 축소해 나가고, 고용촉진법을 개선하며, 연금 및 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나. 주요 현안

1) 홍수피해로 경기회복 난망

□ 오스트리아는 올해 8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로 1954년 대홍수 이후 최악의 피해를 겪었음.

- 오스트리아의 WIFO 경제연구소는 홍수로 인한 총피해액을 74억 유로로 추정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들은 약 100억 유로정도로 추정하였음.

-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해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15억 유로(약 1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음.

-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세금감면 등의 세제개혁을 향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홍수피해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경기둔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02년 초만해도 2002년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망되기도 하였으나, 홍수피해와 인근 독일의 경기침체로 인해 1% 경제성장 달성도 힘들게 되었음.

- 오스트리아 경제는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최대 수출대상국인 독일의 경기둔화가 시작되면서 2/4분기에 이미 경기둔화가 시작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된 것임.

2) 에너지시장 개방

□ 오스트리아는 10월 가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2단계 시작과 전기시장 개방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였음.

-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EU내에서는 영국과 독일에 이어 에너지시장을 자유화한 3번째 국가가 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심화가 에너지비용을 낮춰주고 에너지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에너지시장 개방은 EU 정상회의에서도 항상 논의되는 주요 의제로서 지난 3월 바르셀로나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시한에 대한 결정은 2004년까지 보류된 상황임.

- 현재 에너지시장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회원국은 프랑스로 이는 프랑스가 에

너지시장 개방이 에너지가격의 인하보다는 시장왜곡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것임.

3) 중도우파 인민당 총선 승리

□ 11월 24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볼프강 쉬셀(Wolfgang Schuessel)이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인 인민당(OVP: People's Party)이 승리하였음.

- 이날 총선에서 인민당은 42.3%의 지지율로 득표율 1위를 차지하여 36년만에 제1당의 위치를 회복하였으며(1999년 총선에서는 26.9%의 지지율), 2위는 사회민주당(SPO)으로 36.9%의 지지율을 얻음.

- 무엇보다 오스트리아 정계에서 단일정당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임.

□ 인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극우정당인 자유당(FPO: Freedom Party)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데 기인함.

- 1999년 총선당시 反이민정책으로 1/3의 지지율을 자랑하였던 자유당은 최근 나치의 인종정책에 대한 동조발언과 중·동구의 EU 가입 반대, 홍수피해 대처 미비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10.2%의 저조한 지지율을 얻었음.

- 더욱이 지난 8월 인민-자유당 연립정부가 홍수피해를 감안한 감세정책 실행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결국 연립정부가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자유당의 의회내 입지는 급속히 약화되었음.

- 그러나 아직 인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형성할 수도 있으나, 그 동안의 양당간 대립으로 자유당보다는 사회민주당과의 연립정부 형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 한 · 오스트리아 경제현안

가. 개요

□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경제협력관계는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 제국간에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후 발전되어 옴.

- 이후 1905년 일본의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로 오스트리아와의 관계가 단절된 후 1963년 5월 23일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재수교가 이루어짐.

□ 2001년말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5억 853만 달러로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41대 수출대상국이자, 41대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1963년 수교 이후 한국은 對오스트리아 교역에서 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적자로 반전되었음. 이후 계속 적자상태에 놓여 있다가 1999년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되어, 2002년 10월말 현재 7,280만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2001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1980년대까지는 신발과 의류 등 경공업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ㅇ 2002년 10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PC모니터, 의료용기기, 자동차, 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산업용 원부자재로 쓰이는 금속관물, 기계류, 크리스탈 제품과 같은 유리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등임.

□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투자규모는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시 매우 저조한 편이나, 오스트리아는 2004년 중 · 동구의 EU 가입시 이들 국가들로의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오스트리아의 對한국 투자는 199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2년 2월말 현재까지 총투자액은 2,864만 달러로 적은 규모임

○ 현재까지 오스트리아가 투자한 최대건수는 Engel社가 1997년 7월 경기도 장단공단에 사출성형기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2,500백만 달러 상당을 투자한 것임.

-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투자도 2001년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2,361만 달러 정도로 적은 규모임.

○ 주요 직접투자로는 대우자동차가 1994년 7월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과, (주)메디슨이 1996년 5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인수한 것이 있음.

- 이 외에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기술협력 건수는 수교이후 약 30여건에 달하며, 주요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음.

○ 포항제철이 Voest Alpine社로부터 산소전로공법과 Corex 전기로제철공법을 도입한 것과 현대자동차가 AVL社와 자동차엔진 제작 관련 기술을 협력한 것이 가장 큰 기술협력이었으며, 이 외에도 한국기업들은 오스트Liebherr社(건축용중장비), Biochemie社(의약품), Aichelin Industrieofenbau社(산업용용광로), Ebewe社(의약품), Beton und Monierbau社(터널, 토목공사) 등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나. 주요 통상현안

□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EU의 공동정책을 준수하는 입장이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마찰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한국과 EU간에 통상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의류, 농산물, 자동차부문에 있어서의 EU 전체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다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인삼 및 인삼제품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인삼제품 수출이 애로를 겪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의약품법(Arzneimittel Gesetz, 1988년 개정) 제 51조 및 57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동법에 따르면 의약품성분이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일반인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동 제품의 분석비용 및 행정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며, 또한 보건부 약품성분분석위원회의 제품분석 및 일반인에 대한 판매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의 인삼 수출제품들 중 오스트리아 보건부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 건도 없는 상황임.